**제3과 예배받으실 유일한 분 2020.2.2**

◎ 찬양 : 찬송가 8장(통일 9장)「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 사도신경

◎ 아이스 브레이킹

당신이 가진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요한계시록 4장 8∼11절).

**말씀 펼치기**

**예배란?**

예배는 어떤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대상을 올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배를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받으십니다(요 4:21∼24).

따라서 우리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도, 신우들과 함께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성도가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질서와 전통, 연합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류를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Q :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배의 길을 여신 예수님, 예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히 10:19∼20).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요 15:26 고전 2:12). 또한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병 고침, 귀신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행 10:38 롬 8:1∼2).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Q : 우리는 누구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누가 함께해야 합니까?

**◎ 삶 속으로**

1.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 권사님은 예전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나 머리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체험 이후 비로소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최 집사님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오랜 세월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신유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2.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과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당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5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 집사님은 매 주일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공과 공부를 인도합니다. 김 집사님은 매주 긴장하며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김 집사님은 교회학교 교사라는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 집사님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 집사님은 민원이 무사히 처리되어 주민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처럼 서 집사님은 일터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 결단과 기도**

**결단의 고백**

·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기로 결단합니다.

· 언제나 성수주일하기로 결단합니다.

·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성기도**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저에게 최고로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관련 성구**

·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시편 5편 7절)

·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시편 29편 2절)